

참고자료 2. 에너지·자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

에너지용·복합기술 등 『에너지기술혁신(ETI)프로그램』 전략사업 본격 착수

- 에너지관리공단(이사장 李起燮)은 올해 에너지·자원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신규과제를 최종 선정하고, 올해 686억원(정부 451억원, 민간 235억원)을 투자하기로 하였다.
-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해 5월 수립한 『국가에너지·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(06~15)』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성장 동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형 R&D 과제인 “에너지기술혁신(ETI) 프로그램” 8개 사업(259억원 규모)에 대한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된다.
 - ETI 프로그램은 원천기술개발로부터 실증·상용화 단계까지 기술개발의 쏠단계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산·학·연 공동 컨소시엄으로 구성·운영되며, 과제당 연간 30~40억원의 정부예산이 향후 7년간 투자될 예정이다.

〈 ETI 프로그램 :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〉

- 에너지 용·복합 시스템 기술개발 : 석유·가스 탐사, 개발, 생산기술의 자립화기술개발 등 5개 과제
- 전략기술개발 : 청정 화력발전 기술과 연계한 온실가스처리 시스템 개발 등 3개과제

- 또한, 이와 함께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41.2%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7대 품목을 선정, 세계 최고수준의 고효율 에너지기기 개발을 위한 “THE-7 Runners 프로그램” 9개 과제(103억원 규모)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.

* THE-7 Runners(Technology-based Highly-Efficient 7 Runners)

* 7대 기기 : ①보일러 ②전동기 ③공업로 ④건조기 ⑤조명기기 ⑥냉난방기기 ⑦가전기기

- 이밖에도, 국가에너지·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(06~15)에서 제시된 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잠재량 및 상용화 가능성이 큰 중·대형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,
 - 에너지효율향상기술에서 “압축공기시스템 에너지절약 요소기술개발” 등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우수하여 에너지 원단위 개선의 기대효과가 큰 19개 과제
 - 온실가스처리 분야에서 “non-CO₂ 온실가스 저감 및 분리·회수 기술개발”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6개 과제를, 자원기술 분야에서는 “금속광물의 고도선광 및 친환경 제련기술”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원료개발을 위한 4개 과제의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.